

중국 산둥성과 미래 신산업 협력방안 모색

전북도, 수소 산업분야 교류 간담회 영상회의로 갖고 정책 공유·경제 회복 위한 활발한 교류 다짐

전북도가 중국 우호 지역인 산둥성과 수소 산업 성공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경제의 산업협력을 위해 중국 우호 지역인 산둥성과 수소 산업분야 교류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장과 산둥성 쑤예바오(孫業寶) 외사관공실 부주임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 지역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도는 '탄소중립 2050 선도, 그린수소산업의 중심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완주군은 '수소경제 으뜸도시 완주'를 주제로 수소 산업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도와 완주군 차원의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양 지역 중견기업을 매칭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전북도 측은 완주군, 수소 기업 등 기관 관계자, 산둥성 측에서는 에너지국, 쑤보시 외사관공실 발전개혁위원회 등 기관·기업의 관계자가 참석해 연대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국의 국제교류 부서 간에 작년 11월 합의한 양 지역 주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경제의 산업협력을 위해 중국 우호 지역인 산둥성과 수소 산업분야 교류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력산업 분야 교류에 관한 합의의 후속 조치로, 양 지역 간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북도와 산둥성은 지난 2006년에 첫 우호결연을 맺고 행정,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해왔다.

산둥성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지역으로 한국과 교류가 중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특히, 한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경협단지가 산둥성(엔타이)과 새만금에 있어 전북과 경제협력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장은 "산둥성과의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와 시·군,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교류의 장 마련을 시작으로 중국 우호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교류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꿈그림 미술관' 운영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김정호)은 오는 7월 5일부터 그림수업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꿈그림 미술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꿈그림 미술관'은 명화감상, 수채화 그리기, 연필소묘, 드로잉 등 미술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어린이들이 개인의 감성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내용은 거장의 명화를 감상하고 따라 그려보으로써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림과 친해지고,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명화감상과 다양한 그림기법을 배워 내면의 감성을 시각적·공간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리기로 구성된다.

김정호 도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어린이들이 그림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길 바란다"며 "부모와 함께하는 미술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폭염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추진

전북도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9월까지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도는 올 여름 폭서기 동안 취약노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폭염 피해 사전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했

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전담사회복지사(149명), 생활지원사(2,069명)가 취약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3만 2천여명)의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에 따라 무더위 쉼터(도내 5,130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해 안내한다.

무더위 시간대(오후 12시~오후 5시)에는 발일 등 야외 활동을 적극 자제하도록 당부한다.

김현옥 도 노인복지과장은 "혹서기에 취약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돌봄과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안돼요"

전북도, 산림보호 계도·단속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지난 30일 산림 내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상업행위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 계도·단속을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입간판 설치, 현수막 게첨 등 단속계획을 알리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함께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등 계도 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계도·단속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 계곡, 도내 명산, 자연휴양림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이며,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예방과 발생 쓰레기 퇴거가기 홍보 활동도 시행한다.

주요 계곡, 등산로 입구 등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계도·단속 활동을 하고, 도내 국립립관 리소, 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휴양객들에게 산림환경 보전의 중요성 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내가 가져온 쓰레기 퇴거가 가기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등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건전한 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고군산군도 내 모든 카페와 새만금개발공사가 협업체 고군산군도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군산군도 에코섬 챌린지'를 시작한다.

'고군산군도 에코섬 챌린지'

새만금개발공사, 고군산군도 내 모든 카페와 협업 플라스틱 다이어트·텀블러버 행복드림 이벤트 등 전개

고군산군도 내 모든 카페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가 협업체 고군산군도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군산군도 에코섬 챌린지'를 시작한다.

올해 챌린지 주제는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앞으로 6개월간 고군산군도 일대의 카페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빨대를 갈대빨대 등 친환경 빨대로 전면 교체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텀블러를 소지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텀블러버 행복드림' 이벤트를 전개한다.

SNS를 통해 친환경 여행 실천을 인증한 고군산군도 여행객에게 추첨을 통해 매일 선물을 증정하는 '기후다짐러 액션인증' 챌린지도 함께 실시한다.

고군산군도 에코섬 챌린지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며, 새만금 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서부발전과 SK E&S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강팔문 사장은 "에코섬 챌린지가 성공하면 새만금 사업의 성공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고군산군도가 우리나라 대표 에코섬으로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텀블러버 행복드림' 이벤트를 전개한다."

/유호상 기자

도,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보다 균형 잡힌 식사 제공 위해 1끼당 5000원~6000원

도내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인상돼 아동에게 보다 균형잡힌 식단이 제공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전북도는 7월 1일부터 급식단가를 1끼당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아동에게 현실적인 영양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전북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1년 기준 도내 지원대상아동은 1만8,045명으로 급식 카드, 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등 시·군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 동안 급식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원

격수업일을 방학에 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 발생 방지를 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남 도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으로 결식아동에게 보다 영양이 있고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급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